

# 만화 독서 프로그램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Comic Book Reading Program on Korean Proficiency and Acculturation of Youth with Immigration Background

임 여 주 (Yeoju Lim)\*\*

### 초 록

본 연구는 소수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연구자와 함께 6개월간 10권의 만화책을 읽고 그에 관하여 토론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독서 프로그램의 참여가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에서 엮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 중 이주배경 청소년의 삶과 연관 있는 주제를 다루거나 이주배경 청소년이 높은 흥미를 보이는 만화책 열 권이 독서 프로그램의 읽기 자료로 선정되었다. 독서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한 독서 능력 평가 결과, 연구 참가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대체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추론력과 어휘력 부문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쓰기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비문이 줄고 문장 내에서 문법적 오류가 줄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대체로 한국 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었으나, 통합적 민족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참가자의 경우 작품 속 인물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만화책을 통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상기하였으며, 독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 썸에는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소설 형태의 읽기자료에까지 관심을 확장하게 되었다.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mic book reading program on Korean proficiency and acculturation of youth with immigration background, by conducting a six-month reading program with five teenager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Ten comic books were selected from 〈Excellent comic book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published by School Library Journal, based on the themes - that are related to the lives of youth with immigration background - and interests of participating teens. According to the literacy skills test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reading program, the participating teens' Korean proficiency has generally improved,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interpretation and vocabulary. In terms of writing, grammatically incorrect sentences, phrases, and expressions have declined. Most participants showed stable adjustment to Korean culture, but one participant who felt still insecure of her ethnic identity deeply empathized with one of the characters of the books, and shared the difficulties of living as an outsider of a society.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learned or rediscovered the joy of reading through this comic book reading program: at the end of the program, many of them expanded their interest in reading novels, books without any illustrations.

키워드: 만화, 독서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능력, 문화 적응

Comics, Reading program, Youth with immigration background, Korean proficiency, Acculturation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1024997).

\*\* 한성대학교 시간강사(yeojoolim@gmail.com)

논문접수일자 : 2019년 2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3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3월 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5-27,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1.005]

## 1. 서론

2016년 3월 9일 정부는 제12회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영유아기 자녀에게는 언어와 기초학습 지원에, 학령기 자녀에게는 사회성 향상과 역량 개발에, 청년기 자녀에게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남지원 2016; 서울신문 2016; 여성신문 2016). 이 대책방안에서 언어 학습의 지원은 영유아기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며, 학령기 자녀의 언어 학습 필요성 및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 중 상당수는 영유아기에 충분한 언어적 자극을 받지 못한 결과로 현재 또래에 비해 낮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어휘력, 독해력, 작문 능력, 언어를 이용한 자기 표현력 등의 언어 능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는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각한 학습 부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김용현 2007; 유재연, 이효인 2012). 언어 능력은 학업 수행을 포함한 학교생활의 적응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이은해 외 2010),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높은 학업 중단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명희 2012).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조금씩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 검사지

혹은 시험을 통한 언어능력 점수 향상의 검증에만 집중되어 있어(이소연 외 2009; 조미정, 정은희 2009; 조윤경 2014) 독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린이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독서 프로그램에 사용된 텍스트가 연구에 참가한 어린이의 독서 흥미와 거리가 멀거나 참가 어린이의 연령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의 책인 경우가 많아(심지선 2014; 조미정, 정은희 2009) 해당 독서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단기간의 언어 능력 향상을 넘어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정립과 그로 인한 언어 능력의 꾸준한 발전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독서 연구자인 Stephen D. Krashen은 언어 학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 자발적 독서(Free Voluntary Reading)를 꼽으며, 만화를 비롯한 가벼운 읽기 자료가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고취시켜 자발적 독서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Krashen 2004).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대부분의 만화에는 고급 어휘와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 많아, 만화 독자들은 만화를 읽지 않는 독자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언어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Anderson, Wilson, and Fielding 1988; Arlin and Roth 1978; Blakely 1958; Greaney 1980; Sperzl 1948). 고차원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쉬운 어휘로 쓰여진 일부 만화의 경우 또래에 비해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좋은 언어학습 교재로 쓰일 수도 있다(Krashen 2004; Norton 2003). 국내 만화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출판

된 일부 상업적 학습만화는 동일 학년을 대상으로 출판된 어린이책에 비해 어휘의 개수가 현저히 적고 문장 구조도 비교적 간단하여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의 독서 능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내포 독자로 하여 그래픽 노블의 형태로 출판된 최근 만화 중에는 어휘의 개수와 난이도, 문장 구조의 형태 등이 일반 도서와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청소년을 위한 언어 학습의 도구로 손색이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언어를 배우는 이민자의 자녀나 외국인 학생들이 만화를 활용한 독서 지도를 통하여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에 비추어볼 때(Chun 2009; Crawford 2004; Frey and Fisher 2004), 외국인 부모를 가진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도 만화가 효율적인 언어 습득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 중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삶과 연관 있는 주제를 다루거나 이주배경 청소년이 높은 흥미를 보이는 만화책 열권을 선정해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이와 같은 독서 프로그램이 이들의 한국어 능력 발달과 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화는 예술적인 그림과 재미있는 스토리로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강한 매체인데다, 더 높은 수준의 독자로 독자를 이끄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Hayes and Ahrens 1988)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가자들이 평생독자로서의 자질

을 갖추게 될 가능성도 기대해 보았다.

본 연구는 또한 독서 프로그램 참가자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과 창의적인 독후 활동을 통해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독자반응이론(Reader Response Theory)에 입각한 질적 접근으로, 연구 참가자인 독자들이 만화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 속 캐릭터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찰해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언어학자이자 교육학자인 Leung은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반응연구가 주류 문화에 가려져있던 이중 문화(bicultural) 어린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Leung 2002). 이는 한국인 부모를 가진 어린이들 사이에서 소수자이자 비주류로 살아가는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작품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청년기 진입 전까지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 적응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해내려고 했다. 또한, 검사지를 통한 언어능력과 문화적응능력 점수 향상의 검증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 연구들에 질적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연구 분야에 새로운 접근점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는 상당수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안정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언어 능력 향상과 문화 적응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나오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년 이하 연령대의 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조미정과 정은희(2009)는 국어과목 성취도가 낮고 읽기 능력이 또래에 비해 1년 이상 지체되어 글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등학교 4학년 이주배경 어린이 3명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독서 활동이 이주배경 어린이의 독해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하며, 이주배경 어린이의 학습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독서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선(2014)은 모계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 출신의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3명을 대상으로 4주동안 총 여덟 번의 회기에 걸쳐 전래동화를 이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는 전래동화 7편이 포함되었으며, 1-2회기에는 자신에 대한 표현을 통한 생각의 흐름 이해하기, 3-6회기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변 둘러보기, 7-8회기에는 '함께'와 '어울림'이라는 문화 가치에 대한 긍정심 갖기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문화 적응과 학교 적응 전반에 걸쳐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화적 개방성과 정서적 무기력감 요인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으며, 교우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박미정(2008)은 초등학교 재학중인 이주배경 어린이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그들

의 가정과 학교 내의 언어 환경과 문식성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독서 생활 실태 및 독서 활동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을 지도하는 담임교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활 태도와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았다. 박미정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어린이를 위한 독서 지도 목표와 도서 선정 기준을 세워 이주배경 어린이의 독서 발달 단계에 맞는 권장도서를 단계별로 50권씩 선정한 후, 권장도서를 참고하여 수업안을 계획하였다. 수업안을 바탕으로 13명의 이주배경 어린이와 90분간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독서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휘력의 향상 등은 측정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참가 어린이들이 독서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설문 응답을 했다.

만화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이 학습만화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백진환과 한운옥(2011)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총 8차시의 학습만화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독후활동지, 학습일지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만화는 독서 부진아 및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에 적절히 활용시 독서 의욕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임과 한복희(2009)는 중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학습만화와 일반도서에 대한 독서 실태를 분석하고 학습만화를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재미를 위해 학습만화를 본다고 대답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습만화에 더욱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학습만화를 일반도서와 연계하여 독서지도를 한다면 청소년

년의 독서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중문(2012)은 초등학생 291명과 학부모 203명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만화의 적극적 독자인 학생들과 이를 대하는 학부모들이 만화에 대해 갖고있는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 상당수가 학습만화 독서의 경험이 있었고, 학습만화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학생과 학부모 집단 모두에서 학습만화가 일반 독서로 이어지는 독서전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만화책과 독서에 관한 국내 연구가 주로 학습만화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외에서는 만화책이 언어발달과 리터러시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민자나 외국인 학생들의 영어 학습과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다중모드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 등의 습득에 있어 만화가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Crawford(2004)는 만화에서는 그림이 글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풍성한 문맥적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화가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자'(second language learner)들의 언어와 리터러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James Denman 중학교 도서관에서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그래픽노블 독서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과 독서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만화 장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hun(2009)은 만화가 '제2 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자'의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발

달을 돕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며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그래픽노블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Chun은 아트 슈피겔만의 <쥐(Maus)>를 예로 들며, 인종차별과 이민자로서의 삶을 다룬 그래픽노블이 제2언어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독서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민자나 외국인 학생들은 공감할 수 있는 그래픽노블 읽기를 통하여 영어 독서 능력이 향상되고 비판적 토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교우관계가 확장되고 학업성취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Frey와 Fisher(2004)는 학급 인원의 72%가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자'인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32명의 학생들과 함께 4주에 걸쳐 그래픽노블을 활용한 작문 수업을 진행했다. 연구자들은 텍스트의 비중이 적은 그래픽노블 일부를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각 장면이 의미하는 바를 학생 각자가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사전과 시소러스를 사용하여 각 장면에 가장 적합한 영어 단어를 고르고, 5분동안 해당 장면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적어냈다. 학생들은 작품의 해석에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으며, 때문에 글짓기에 애착과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어휘력과 작문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작문에서 문장의 길이도 늘어났다. 연구자들은 그래픽노블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휘력과 문법에 대한 이해 등 독서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수의 이주배경 청소년과 함께 6개월간 10권의 만화책을 읽어나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독서 프로그램의 참여가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화책 독서 프로그램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만화책 독서 프로그램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만화책 독서 프로그램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독서 흥미와 독서프로그램 참가자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독서 프로그램의 진행과 참가자들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과 프로그램 전후로 검사도구를 이용해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독서 프로그램은 격주로 진행되었으며 독서, 독서 토론, 독후 활동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독후 활동은 독서한 텍스트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글로 창작해보기, 작품 속 등장인물에 관한 자신만의 상상력 펼치기 등 독서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활동은 독서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참가자들의 언어 능력 변화 추이와 이들이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다중모드 리터러시<sup>1)</sup> 능력(multimodal literacy skills)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Hughes 2011).

#### 3.1 연구대상

경기도에 위치한 이주민 지원센터A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공부방B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 다섯 명<sup>2)</sup>이 연구 참가자가 되었다. 연구 참가자들 중 네 명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양육된 아이들로 모두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외국인이다 - 어머니들의 출신 국가는 태국, 필리핀, 예멘이다. 연구 참가자들 중 한 명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에 외국으로 보내져 양육된 후 학령기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중도입국자녀이다. 한국에 재입국한지는 3년이 되었으며 연구 진행 당시 따갈로그어(필리핀의 공식 언어)와 한국어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상태였다 - 구술 능력은 비슷했으나 필기 능력은 따갈로그어에 비해 한국어가 취약한 편이었다. 이 청소년 또한 다른 네 명과 마찬가지로 친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외국인(필리핀인)이나, 현재 함께 살고있는 아버지는 외국인(파키스탄인)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나

1) 다중모드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는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s)에 기원한 용어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의미 형태(modes of meaning)를 가진 언어 혹은 의사표현방식 능력을 뜻한다. 의미 형태의 예로는 말, 제스처,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있다(Multimodal Literacy 2017). Hammond(2009)와 Hughes(2011)는 그래픽 노블이 텍스트 리터러시와 비주얼 리터러시가 맞물리는 미디어이므로, 다중모드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해석해야 하는 텍스트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였다.  
2) Hennessy and Heary (2005)에 의하면 질적 연구에서 청소년들과의 포커스 그룹 연구를 진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는 5명에서 8명 사이이다.

이는 12세에서 16세 사이로 모두 청소년이라 분류할 수 있는 연령대이다. 이들 중 세 명은 남학생, 두 명은 여학생이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재 언어 능력이나 표현력 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연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모두 3년 이상 서로를 알아왔으며 일정 정도의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4년 전부터 다문화 공부방 B에서 주말마다 자원 봉사 교사로 일해오고 있었으며 어린이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담 없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를 진행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독서 프로그램에 사용된 텍스트는 총 10권으로,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에서 엮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 중에서 대부분 선택되었다. Chun

(2009)은 만화가 언어를 배우는 학생의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발달을 돕는다고 주장하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만화 읽기를 통하여 독서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고 나아가 독서 능력의 향상과 학업 능력의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만화 작품들은 연구에 참가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그들이 흥미를 보이는 내용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이 본 연구에 애착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0권 중 4권은 연구자가, 나머지 6권은 연구 참가자들이 직접 선정하게 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의 주요 주제는 우정, 소속감, 자아정체감, 인종차별, 가족간의 사랑, 인생의 가치 등이 포함되었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표 2〉와 같다.

〈표 2〉의 목록에 있는 작품들 중 연구 참가자들이 고른 작품은 〈슬램덩크〉, 〈원피스〉, 〈신크레용 신짱〉, 〈하이큐<sup>3)</sup>〉, 〈강철의 연금술사〉, 〈블리치〉이다. 연구 참가자 5명이 한 권씩 선정하게 하였으며, 마지막 한 권은 연구 참가자들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정보

이름 (가명)	나이	성별	어머니의 출신국가	아버지의 출신국가	기타
예린	12	여	예멘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람
시완	12	남	필리핀	한국/파키스탄인	한국에서 태어나 5세에 필리핀으로 갔다가 9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옴
진영	13	남	필리핀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람
민혁	14	남	태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람
도경	16	여	태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람

3) 〈하이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에 소개된 책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 참가자가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의 출판일(2012년 11월 30일)이 〈하이큐〉 1권의 출판일(2013년 4월 30일)보다 빠르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에 소개된 다른 만화책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큐〉가 출판일이 1년만 빨랐더라면 충분히 이 책에 소개될 만한 작품이라고 판단하여 〈하이큐〉도 본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표 2〉 연구 대상자를 위한 선정 만화작품

	제목	권호수	작가	출판사	출판연도	주제
1	보노보노 <sup>4)</sup>	21권	이가라시 미키오	서울문화사	2011	일상, 가치관
2	슬램덩크	1, 2권	타케히코 이노우에	대원씨아이	2015	성장, 우정, 가치관
3	진과 대니		진 루엔 양	비아북	2008	인종차별, 자아정체감
4	원피스	58, 59권	오다 에이치로	대원씨아이	2011	성장, 가족, 소속감
5	수상한 내 인생		장 르노 & 에밀 브라보	다림	2012	성장, 가족, 비밀
6	신 크레용 신짱	1권	우스이 요시토	학산문화사	2012	유머, 가족
7	하이큐	1, 2권	후루다테 하루이치	대원씨아이	2013	성장, 우정, 가치관
8	강철의 연금술사	10, 11권	라카와 히로무	학산문화사	2010	가족, 가치관
9	캠핑의 개구쟁이		라트	꿈틀	2008	자아정체감, 가족, 전통
10	블리치	47, 48권	쿠보 타이토	서울문화사	2010	자아정체감, 가치관

간의 투표를 통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흥미롭게도 연구 참가자들이 선정한 작품들은 모두 일본 작가의 작품이었다. 한국 청소년이 향유하는 대중문화에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연구자가 고른 작품은 〈보노보노〉, 〈진과 대니〉, 〈수상한 내 인생〉, 〈캠핑의 개구쟁이〉이다. 책의 내용이 연구 참가자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작품 형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비교적 그래픽노블의 형식에 가까운 작품 위주로 선택하였다. 작가와 작품 주인공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 또한 작품 선정의 중요한 요소였다. 선정된 만화는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서 중학생까지를 추천 독자로 삼고 있는 작품들이다. 연구 참가자들이 독서 프로그램

램을 향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선정한 책과 연구 참가자들이 선정한 책을 번갈아가며 읽도록 배치하였다.<sup>5)</sup>

### 3.2 연구내용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연구는 총 12차시로 진행되었다. 각 차시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개요는 〈표 3〉과 같다.

1차시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진행 방향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읽어나갈 책을 선정하였으며, 독서 능력 평가지를 작성하여 연구 참가자 개인의 현재 독서 능력을 체크했다. 2차시 프로그램 전에 모든 참가자에게 2차시에 토론할 책을 나누어주어 읽고 오게 하였다. 2차시 만남에서 참가자들은 2차시 선정 도서에 관련하여 연구자가 준비해 간 독후활동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토론과 독후활동을 실시하였다. 독후활동지는 각 책의 내용에 맞추어 연구

4) 〈보노보노〉, 〈슬램덩크〉, 〈원피스〉, 〈신 크레용 신짱〉, 〈하이큐〉, 〈강철의 연금술사〉, 〈블리치〉는 시리즈물로, 전체 시리즈를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시리즈 중 한 권 혹은 두 권만 보기로 하였다. 몇 번째 권을 볼 것인지는 연구 참가자들이 다 함께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5) 예: 3차시에는 연구 참가자가 선정한 책인 〈슬램덩크〉를, 4차시에는 연구자가 선정한 〈진과 대니〉를 읽음.

〈표 3〉 각 차시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개요

차시	자료	활동
1	만화책 365, 독서능력평가지	연구의 목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나눔 함께 읽어나갈 책 선정 독서능력평가지 검사 실시
2	보노보노(21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3	슬램덩크(1, 2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4	진과 대니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5	원피스(58, 59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6	수상한 내 인생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7	신 크레용 신짱(1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8	하이큐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9	강철의 연금술사(10, 11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10	캠핑의 개구쟁이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11	블리치(47, 48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12	독서능력평가지	독서능력평가지 검사 실시

자가 준비한 질문에 글로 답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질문의 개수는 평균 4개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각각의 책에 맞추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독후활동지에 나온 질문의 예는 〈표 2〉와 같다). 3차시에서 11차시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2차시에서는 독서 능력 평가지로 독서 프로그램이 끝난 후의 독서 능력을 체크하였고, 그동안 함께 해온 지난 6개월간의 프로그램 진행 및 함께

읽은 책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 차시는 평균 약 90분 가량 소요되었다. 토론이 활발해지거나 독후활동지의 작성 시간이 많이 걸린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추가 시간을 두기도 하였다(〈표 4〉 참조).

프로그램 진행의 전 과정은 녹음되고 전사(transcribe)되었다. 기록된 스크립트는 매 차시가 끝날 때마다 독자반응이론<sup>6)</sup>에 근거하여

〈표 4〉 독후활동지 질문의 예 - 〈슬램덩크〉

번호	질문
1	이 만화에서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는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이 만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세 개만 적어보세요.
3	이 만화의 제목이 〈슬램덩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슬램덩크〉 3편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나요? 나만의 시놉시스를 만들어봅시다.

6) 독자반응이론은 텍스트가 그 자체로 완성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독자가 그것을 읽는 행위를 통해 이해와 해석의 과정을 거쳐 의미가 완성된다는 이론이다. 작품과 독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품 해석의 의미를 형성해나 가게 된다(Rosenblatt 1982; Sutherland 1985).

분석되었으며, 해당 차시의 스크립트 분석 결과는 다음 차시의 프로그램 진행에 반영되었다. 스크립트 분석에는 대화의 흐름, 각 참가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참가자가 말하는 문장의 길이와 구조, 텍스트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의 뜻에 대한 참가자의 질문, 참가자의 주요 의견과 태도, 참가자끼리의 상호작용, 참가자가 텍스트와 자신의 실제 삶을 연결하는 방식,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주요하게 작용하는 테마 등이 고려되었다. 문화적응에 관한 태도를 분석할 때에는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한국 적응 상황과 이들의 모국 문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사용, 몽골문화 관련 변수, 한국문화 관련 변수를 세분화하여 측정한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평가 척도를 참고하였다.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연구에서 (1) 언어사용 관련 변수는 '이중언어 사용의 자랑스러움' 정도, (2) 몽골문화 관련 변수 관련 변수는 몽골음악 선호도, 몽골영화/TV 선호도, 몽골의복 선호도, 몽골음식 선호도, 몽골문화활동 참여의 중요도, 몽골문화에 학습의 중요도, 몽골에서의 진학/취업 희망, 몽골인이란 이유로 차별경험, (3) 한국문화 관련 변수는 한국음악 선호도, 한국영화/TV 선호도, 한국의복 선호도, 한국음식 선호도, 한국문화활동 참여의 중요도, 한국문화 학습의 중요도, 한국거주에 대한 자랑스러움, 한국 지속 거주희망, 한국에서의 진학/취업 희망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평가 척

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연구 참가자들의 대화와 독후활동지에 나오는지를 검토하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삼각화<sup>7)</sup>(triangulation)의 일환으로 독서 프로그램의 시작 전과 후에 독서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독서 능력 평가에는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검증된 독서 능력 평가 도구 중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검사도구인 (주) 낱말 어휘 정보처리연구소의 'LQ<sup>8)</sup> 우리말 독서력 평가'를 사용하였다. LQ 우리말 독서력 평가는 미국의 Lexile 평가체계에 의한 독서력 프로그램과 동일한 체계 및 형식을 갖춘 과학적 평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까지 각 나이에 맞는 최적화된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서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독서력을 어휘, 사실, 추론, 비판 네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며, 종합 점수인 LQ 지수는 전국평균과 비교가 가능하다.

## 4. 연구결과

### 4.1 한국어 능력의 향상

독서 프로그램의 시작 전과 후에 실시한 독서 능력 평가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의 독서 프로그램은 총 10차시로 약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독서 능력 평가는 독서 프로그램 시작 2주 전과 프로그램 종료

7) 삼각화(triangulation)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법, 연구자, 조사대상, 공간적/시간적 설정, 혹은 다른 이론적 입장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8) LQ는 독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Lectio와 지수를 의미하는 영어 Quotient의 결합어로 독서지수를 의미하기 위하여 (주)낱말에서 만든 용어이다.

〈표 5〉 독서 능력 평가 검사 결과

연구 참가자	평가점수		독서프로그램 전		독서프로그램 후	비고
예린 (12)	LQ점수		340	→	470	+150
	영역별 점수	어휘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사실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추론	다소 부족	→	평균 수준	추론력 상승
		비판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시완 (12)	LQ 점수		380		N/A <sup>9)</sup>	
	영역별 점수	어휘	평균 수준		N/A	
		사실	평균 수준		N/A	
		추론	다소 부족		N/A	
		비판	평균 수준		N/A	
진영 (13)	LQ 점수		820	→	980	+160
	영역별 점수	어휘	뛰어남		뛰어남	
		사실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추론	평균 수준	→	뛰어남	추론력 상승
		비판	평균 수준		평균 수준	
민혁 (14)	LQ 점수		660	→	930	+270
	영역별 점수	어휘	평균 수준	→	뛰어남	어휘력 상승
		사실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추론	다소 부족	→	평균 수준	추론력 상승
		비판	평균 수준		평균 수준	
도경 (16)	LQ 점수		780	→	750	-30
	영역별 점수	어휘	다소 부족	→	평균 수준	어휘력 상승
		사실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추론	평균 수준		평균 수준	
		비판	평균 수준		평균 수준	

2주 후에 각각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독서 프로그램 전과 후에는 약 6개월간의 간격이 있다.

독서 프로그램 전에 실시한 독서 능력 평가에서 연구 참가자 네 명의 LQ 점수는 전국 평균 LQ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유일한 참가자는 진영(13)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28점)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예린(12)과 시완(12)

의 점수는 각각 340과 380으로 12세 전국 평균 LQ점수인 730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였다. 민혁(14)의 점수는 660으로 14세 전국 평균 LQ 점수인 846에서 약 180점 모자란 점수였다. 그러나 독서 프로그램의 진행 후 실시한 독서 능력 평가에서 예린과 진영, 민혁의 LQ 점수는 큰 상승폭을 나타내 독서 프로그램이 이들의 독서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9) 시완은 9차시 이후 부모님의 직장이 다른 도시로 옮겨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따라서 10차시 이후로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독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후에 LQ 우리말 독서력 평가를 치를 수 없게 되었다.

음을 보여주었다 - 예린은 150점, 진영은 160점, 민혁은 270점이 상승했다. 특히 민혁은 독서 프로그램 후에 실시한 평가에서 전국 평균보다 84점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영역별 점수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부문은 '추론'과 '어휘' 영역이었다. 추론 영역에서는 예린, 진영, 민혁이, 어휘 영역에서는 민혁과 도경이 상승폭을 보였다. LQ 우리말 독서력 평가에서 추론 영역은 “글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이나 숨은 의미를 추측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이고, 어휘 영역은 “어휘의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의 연어관계와 다의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10회에 걸친 독서 프로그램에서 추론 능력과 어휘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 중 일부는 독후활동지를 작성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연구자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았다. 3차시에서 “이 만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세 개만 적어보세요.”라는 문장을 읽을 때 예린, 시완, 진영이 ‘구절’의 뜻을 물어보았다. 특히 예린은 5차시와 8차시에서 ‘와닿은’, ‘묘사’, ‘체형’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그때마다 그 단어의 뜻을 아는 다른 참가자들이 뜻을 설명해주거나 함께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모르는 단어를 익혀갔다(〈표 4〉 참조). 연구 참가자들은 이렇게 습득한 단어를 잘 숙지하여, 다음 차시에서 같은 어휘가 등장하였을 때는 어려움 없이 독후활동지를 작성하였다(〈표 6〉 참조).

〈표 6〉 참가자들끼리 단어의 뜻을 설명해준 예 - 8차시 독후활동지 작성 중 연구 참가자들간의 대화

예린: (연구자에게) 선생님, 체형이 뭐예요?  
 도경: 니 몸매가 체형이야.  
 민혁: 그냥 몸 전체가 다 체형이야  
 도경: 통통한 사람, 마른 사람, 이게 다 그거야.  
 연구자: 이게 한자를 알면 좀 알기가 쉬운데  
 민혁: 몸 체자.  
 연구자: 그 다음에?  
 도경: 형태 형.  
 연구자: 그렇지, 그렇다면 체형은?  
 예린: 몸의 형태.

10차시에서 예린이 독후활동지를 작성하는 도중 “‘쌍눈’ 할 때 어떻게 써야 되죠?”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민혁이 “쌍시옷에 아에 히읗”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상황도 있었다. 연구자는 우선 참가자들끼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사전을 권해주었으며, 그럼에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입하여 단어의 뜻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모르는 어휘를 새로 배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휘를 설명해주는 과정, 이러한 대화를 통해 본문 속에서 그 어휘의 쓰임새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어휘의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의 연어관계와 다의성을 파악하는 능력’(LQ 우리말 독서력 평가의 어휘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되풀이하며 읽거나 그 문장의 뜻에 관해 숙고하여 독후활동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글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이나 숨은 의미를 추측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LQ우리말 독서력 평가의 추론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서 프로그램의 토론 과정에서 같은 문장이나 캐릭터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의미를 발견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책의 내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또한 연구 참가자들의 추론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가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독후활동지에서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비문이 줄고 문장 내에서 문법적 오류가 줄었다. 참가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검문장을 쓸 때 적절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민혁은 1차시, 자신이 읽고 싶은 만화책의 제목과 읽고 싶은 이유를 글로 표현해 보라는 연구자의 안내에 “강철의 연금술사는 연금으로 대등한 조건으로 물건을 물건으로 바꾸는 거다. 이 책이 좋은 것은 과학 원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 상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썼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연금으로’와 ‘대등한 조건으로’라는 부사어절이 연이어 나오며 두 번째 문장은 주어부와 서술부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비문이다. 그러나 6차시부터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였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가장 정확한 표현을 위해 적합한 연결어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10차시에서 한국 외의 나라에 가 본 경험에 관해 이야기할 때 “태국에 가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사발한 것이 생각난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맨들맨들한 머리가 좋았다.”라며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작성하였다.

시완의 경우 독서 프로그램 초반에는 문장을 쓸 때 목적격 조사 ‘을/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부사어를 만들 때 부사격 조사를 적

절히 사용하지 못했다. 특히 ‘에’와 ‘에서’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3차시에서 ‘〈슬램덩크〉 3편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아요? 나만의 시놉시스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문항에 “기초 많이 연습했다가, 강백호가 첫 시합을 했다. 시합에 상대 골때 골 넣었다.”라고 답하였다(옳은 문장은 ‘강백호가 기초 연습을 많이 해서 드디어 첫 시합을 했다. 시합에서 상대 골대에 골을 넣었다.’가 되어야 한다). 시완의 문장은 조금씩 진전하여 8차시에 ‘주인공 히나타 소요와 같이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쇼미더머니 처음 봤을 때 우승한 바비(Bobby)라는 래퍼를 보고 랩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랩을 시작했다.”라고 적었다.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 세 곳 중 두 곳에 적절하게 목적격 조사(이탤릭체로 표기함 - 연구자)를 사용했다.

#### 4.2 문화 적응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을 함께 읽어나가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연구 참가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정돈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오경화(2011)에 따르면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를 연구한 노충래와 홍진주(2006)는 “한국문화정체성이 높을수록 몽고

문화 정체성이 높아짐”(p. 150)을 지적하며 “양쪽 문화에 대해 높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적응 상태가 양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에 대해 높은 긍지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p. 150). 임여주(2016)는 한국의 이주 배경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민족적 정체성을 논하며 ‘다문화(이중문화)로서의 정체성’은 “좌절과 투쟁, 혼돈의 시기인 ‘대면 단계’를 거친 후”에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p. 252). 그는 다문화(이중문화)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며 이는 매우 안정된 형태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다(p. 252). 이와 같이 자신을 둘러싼 둘 이상의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은 ‘통합적 민족정체성(integrated ethnic identity)’(Kim 1994)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자아개념을 보여주었으며 대체로 통합적 민족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진과 대니>에 관하여 토론할 때 진영은 “진은 (본인이) 동양인인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말하며, 본인이라면 같은 상황에서도 진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연구 참가자들 대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이민자를 향한 혐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본인이 속해있는 학교와 동네 커뮤니티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였다. 도경은 학교에 중도입국자녀가 전학을 오면 반 친구들이 먼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친구가 되고 싶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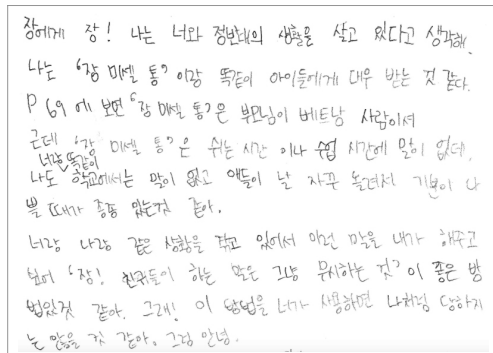
다고 했다. 시완은 부모의 나라와 태어나고 자란 나라 모두가 한 사람의 민족적 정체성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참가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진과 대니>에는 주인공인 진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쉽게 될 수 있다... 네 영혼을 버릴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쉽게 될 수 있어.”라며 진이 동양인의 모습을 버리고 백인의 정체성을 획득하도록 돕는 할머니가 등장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 나눌 때 시완, 진영, 민혁, 도경은 모두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며, 자신은 진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진영은 “나는 나 자신이 좋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버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 힘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만큼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통합적 민족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이들은 외국인인 부모의 나라를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를 기본에 두고 부모 나라의 문화를 포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캄핑의 개구쟁이>에 관하여 토론할 때 민혁과 도경은 어머니의 모국인 태국을 방문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맛있는 밥’, ‘즐거운 추억’ 등을 이야기했으며 ‘언젠가 또 놀러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태국을 즐거운 여행지 중의 한 곳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영은 “말도 안 통해서 행동으로 설명하느라 힘들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분들께 세종대왕을 소개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연구에서 몽골과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한국거주에 대한 자랑스러움’ 항목을 뚜렷이 보

여준 부분이었다.

연구에 참가한 이들 중 다른 네 명과 달리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예린의 경우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읽은 책에서 인종차별적인 장면이나 집단 따돌림 장면이 나올 때 특히 몰입하고 깊게 감정을 이입하였다. <수상한 내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예린은 주요 등장인물이 아니라 보조 등장인물인 '장 미셸 통'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장 미셸 통은 베트남계 이민자의 아들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주민인 프랑스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인물이다. 독후활동으로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보라고 했을 때 예린은 "나는 너와 정반대의 생활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장 미셸 통'이랑 똑같이 아이들에게 대우받는 것 같아."라며 이야기의 초점을 장 미셸 통으로 옮겨갔다(그림 1) 참조). 이 독후활동에서 예린은 주인공 장<sup>10)</sup>에게, 같은 반 친구인 장 미셸 통에게 집단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노하우를 전해달라고 하며, 그 방법을 사용하면 장 미셸 통이 자신처럼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린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상기하였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이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줄 거라 믿는 친구, 언니, 오빠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예린이 괴

해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치료자의 입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예린이 <수상한 내 인생>의 주인공 장에게 쓴 편지 전문<sup>11)</sup>

#### 4.3 독서와 문학에 대한 관심 증진

본 연구가 연구 참가자들에게 미친 큰 영향 중 하나는 독서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증진시킨 것이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형식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본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경과 시완은 평균적으로 매달 소설책 한 권에서 세 권 정도를 읽는다고 얘기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세 명은 평소에 만화책 이외에는 거의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책 장르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본 독서 프로그램에서 평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을 법한 책을 읽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재미를 발견하였고, 그를 계기로 전반적인 책에 대한 호기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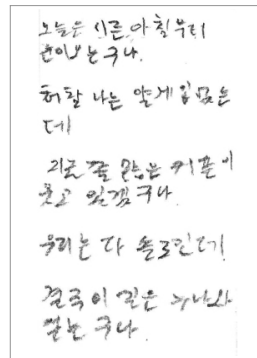
10) 주인공인 '장'과 보조 등장인물인 '장 미셸 통'은 서로 다른 인물이다.

11) 편지를 작성하는 도중 예린 스스로 '장 미셸 통'과 '장'을 혼동하게 되었다. 첫번째 단락과 두번째 단락은 장에게 '장 미셸 통에게 전해달라'며 말한 것이고 세번째 단락은 장 미셸 통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이다.

상승하였다. 연구 참가자들 모두는 <진과 대니>, <수상한 내 인생>, <캠핑의 개구쟁이>와 같은 스타일의 만화책, 즉 그래픽노블을 처음 읽어본다고 하였다. <진과 대니>와 <수상한 내 인생>은 일반적으로 그래픽노블의 특징이라 여겨지는 튼튼한 제본, 좋은 종이 질로 만들어졌으며,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일본 만화책에 비해 글의 양이 상당히 많고 서사구조가 복잡하다. 이런 특징 때문에 시완은 처음에 <진과 대니>에 거부감을 가졌다고 했다. 책의 초반부는 실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후 부터는 서사에 빠져들어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어냈다고 했다. 예린은 4.2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상한 내 인생>을 읽으며 공감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느꼈다고 하였고, 진영은 “그다지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던 <캠핑의 개구쟁이>에 첫장부터 몰입하여 매우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은 만화책을 넘어 시(詩)에까지 확장되었다. 3차시에서 독서 프로그램에 지각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을 논의할 때 도경이 먼저 ‘시 낭독하기’를 벌칙으로 제시했고, 다른 네 명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했다. 청소년들은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시나 학교에서 배운 시를 낭독하기도 했고, 인터넷에서 찾은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평소 좋아하던 시로는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김인욱의 ‘사랑의 물리학’, 학교에서 배운 시로는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심가’, 윤동주의 ‘별 헤는 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이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은 시로는 신달자의 ‘늦

은 밤에’, 작자미상의 ‘지우개’와 ‘저주’ 등이 있었다. 시완, 민혁, 도경은 자작시를 창작하여 낭독하기도 했는데 그 시들은 시를 창작한 본인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뿐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시들이었다(<그림 2> 참조). 참가자들은 다른 이들이 낭독하는 시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멋진 시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림 2> 민혁이 지각 벌칙으로 낭독한 자작시 <눈이 오는구나><sup>12)</sup>

마지막 차시에서 그동안 함께해 온 독서 프로그램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도경은 만화책도 좋았지만 소설책으로도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꺼냈다. 다른 참가자들도 이에 동조하며 앞다투어 자신이 읽고 싶은 소설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잎새>, <레미제라블>, <데미안> 등이 후보에 올랐다. <마지막 잎새>는 “초등학교때 본 것 같은데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진영), <레미제라블>은 “영화를 봤는데 원작을 읽고 싶어져서”(진영), <데미안>은 “(좋아하는 가수인) 방탄소년단의 앨범 콘셉트

12) <눈이 오는구나> 전문: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오는구나 / 허 참 나는 얇게 입었는데 / 지금쯤 많은 커플이 웃고 있겠구나 / 결국 이 길은 누나와 걷는구나”(본인의 연습장에 써서 낭독하였음)

가 데미안이라서”(도경) 등 읽고 싶어한 이유는 다양했다. 이 외에도 이금이 작가의 청소년 소설인 <첫사랑>(예린), 신카이 마코토 작가의 소설 <너의 이름은>(시완) 등이 읽고 싶은 줄글책으로 거론되었다. 참가자들이 만화책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의 즐거움을 경험한 후 자연스럽게 다른 형식의 매체(소설)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바람은 만화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하나 더 열어준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책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부감을 갖고있던 청소년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인 만화를 통해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그를 통하여 이야기 혹은 독서의 매력을 알게 되어 다른 형식의 매체에까지 독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보여준 본 연구가 독서교육 전반에 긍정적으로 활용된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이 독서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4.4 서로간의 유대감 증진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서로를 3년 이상 알아왔으며 일정 정도의 친밀도를 유지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12세에서 16세 사이라는 나이 차이와, 관심사와 취향이 서로 매우 다른 이유 때문에 끈끈한 관계를 맺고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가장 막내인 예린은 주로 언니와 오빠들 눈치를 보는 편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도경은 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중간 나이인 시완과 진영과 민혁은 각기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성향이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독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공통의 관심사인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평소에도 <원피스>, <강철의 연금술사> 등을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애독하고 있던 시완, 진영, 민혁, 도경은 원하는 만화책을 선정하는 작업을 한 1차시부터 평소의 배가 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예린은 나머지 네 명과 만화 취향이 달랐다. 예린은 “작고 흑백으로 된” 만화책에 익숙하지 않았고 독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까지도 그런 종류의 만화책에 호감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예린은 책을 중심으로 나누었던 언니 오빠들과의 대화에서는 큰 즐거움을 느꼈다. 시완, 진영, 민혁, 도경은 자신들에 비해 일본 만화에 관한 지식이 현저하게 낮아 자신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는 예린을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구박했지만, 차시가 진행되면서 점차 예린을 이해하게 되었다. 4차시부터는 네 명의 참가자가 예린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주거나 예린이 머뭇거릴 때에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등 예린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린 역시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학교 생활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학교 급식, 자율학기제, 교복, 시험, 수행평가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참가자들간의 유대감이 크게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화를 이용한 독서 프로그램이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독서 프로그램 전후에 실시한 독서 능력평가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독서 능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관심있는 장르와 형식의 책을 꾸준히 읽고 그에 관해 토론하는 습관이 이들 이주배경 청소년의 독서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서 프로그램 전후에 실시한 독서 능력 평가에서 연구 참가자 다섯 명 중 세 명이 추론 영역에서 상승폭을 보인 것은 다양한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한 가지 텍스트를 다각도에서 짚어보는 경험이 글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이나 숨은 의미를 추측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서와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증진과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간의 유대가 강해진 점 등도 청소년이 좋아하는 특정 장르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 참가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도경(16세)의 경우 독서 프로그램 전후 독서 능력 및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LQ점수는 조금 떨어졌는데(-30), 이것이 도경 개인의 경향인지 혹은 만화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만화책을 통해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소설 등 다른 형태의 독서자료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이 관심이 장기적으로 이들의 독서습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추적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만화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언어적, 문화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대 사회에서 만화라는 매체가 가진 미디어적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저명한 미디어 학자인 Margaret Mackey는 어른들의 믿음과 달리 어린이들은 문화적인 의미를 습득함에 있어 문자를 통한 이해가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003). 즉, 새로운 세대는 문자, 이미지, 음향, 영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만화는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한 매체로 문자 리터러시(text literacy)와 시각적 리터러시(visual literacy)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McCloud 1993; Wolk 2007). 미국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협회(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에서는 2007년에 만화책인 <진과 대니(American Born Chinese)>에 그 해 최고의 청소년도서상을 수여하고 2009년에는 '10대를 위한 최고의 그래픽노블' 목록을 만들어 교사, 사서, 부모들에게 배포하는 등 만화책을 훌륭한 독서 자료로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만화책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열광적인 호응과 학습만화의 교육적 효과를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과 학교 현장에서 학습만화를 제외한 일반 만화는 독서자료로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독서자료로서 만화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도서관과 학교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보다 유연한 자료

의 선정을 피할 수 있게 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호응과 독서를 통한 다양한 리더십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2016. 다문화가족 자녀 20만 시대, 맞춤형 지원 확대. 3월 9일. [online]. [cited 2018.12.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1748201&code=94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1748201&code=940601)>.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용현. 2007.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제대학교.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어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8.
- 박미정.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독서 지도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진환, 한운옥. 2011. 학습만화독서지도 및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13-229.
- 『서울신문』. 2016.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주기별 지원. 3월 10일. [online]. [cited 2018.11.15].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0014007>>.
- 심지선. 2014. 『전래동화를 이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응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여성신문』. 2016.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인재 DB 구축. 3월 10일. [online]. [cited 2018.11.15]. <[http://www.womennews.co.kr/news/91951#.Vu4btCnY\\_g7](http://www.womennews.co.kr/news/91951#.Vu4btCnY_g7)>.
-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83-97.
- 유재연, 이호인. 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쓰기 능력 연구. 『언어치료연구』, 21(3): 101-113.
- 이소연, 민병근, 안현기. 2010. 초등학교 1,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기초학력 검사 결과 및 문항 분석. 『독서연구』, 23: 257-286.
- 이명희. 2012. 『다문화가정의 독서환경과 초등학생 독서능력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혜, 이정림, 김명순, 정해정. 2010. 저소득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한 중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31(1): 65-82.

- 이중문. 2012. 학습만화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227-246.
- 임여주. 2016. 다문화 어린이 문학에 대한 독자반응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1): 237-261.
- 조미정, 정은희. 2009. 독서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8(3): 213-229.
- 조윤경. 2014. 『그림책을 통한 독서지도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최영임, 한복희. 2009. 학습만화를 활용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51-270.
- Anderson, R., P. Wilson, and L. Fielding. 1988. "Growth in reading and how children spend their time outside of school." *Reading Research Quarterly*, 23: 285-303.
- Arline, M. and G. Roth. 1978. "Pupil's use of time while reading comics and book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 201-216.
- Blakely, W. 1958. "A study of seventh grade children's reading of comic books as related to certain other variabl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3: 291-301.
- Chun, C. W. 2011. "Critical literacies and graphic novels for English-language learners: Teaching Mau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3(2): 144-153.
- Crawford, P. 2004. "A Novel approach: Using graphic novels to attract reluctant readers." *Library Media Connection*, 22(5): 26-29.
- Frey, N. and D. Fisher. 2004. "Using graphic novels, Anime, and the Internet in an urban high school." *English Journal*, 93(3): 19-25.
- Greaney, V. 1980. "Factors related to the amount and type of leisure time reading." *Reading Research Quarterly*, 15: 337-357.
- Hammond, H. 2009. *Graphic Novels and Multimodal Literacy: A Reader Response Study*. Köl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Hayes, D. and M. Ahrens. 1988. "Vocabulary simplification for children: A special case of "motherese"?" *Journal of Child Language*, 15: 395-410.
- Hennessy, E. and C. Heary. 2005. "Exploring children's views through focus groups." In Greene, S. and Hogan, D. (Eds.). *Researching children's experience: Approaches and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s.
- Hovey, J. and C. King.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 Hughes, J. M., A. King, P. Perkins, and V. Fuke. 2011. "Adolescents and "Autographics": Reading and writing coming-of-age graphic novel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4(8): 601-612.
- Kim, S. 1994. *Ethnic Identity, Attribute Factors, and Self Esteem Among Korean American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Ph. D. Diss., Emory University.
- Krashen, S. D. 2004.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Connecticut: Libraries Unlimited.
- Leung, C. 2002. "Bicultural perspectives and reader response: Four American readers respond to Jean Fritz's Homesick."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60(1): 49-78.
- Mackey, M. 2003. "Researching new forms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8(3): 403-407.
- McCloud, S. 1993. *Understanding comics: The invisible art*. New York: HarperPerennial.
- Multimodal Literacy. 2017.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Education. [cited 2019.3.5].  
<<http://oxfordre.com/education/view/10.1093/acrefore/9780190264093.001.0001/acrefore-9780190264093-e-232>>.
- Nho, C. R. 2000.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 American & immigrated adolescents*. Ph. D. diss., Columbia University.
- Norton, B. 2003. "The motivating power of comic books: Insights from Archie comic book readers." *The Reading Teacher*, 57(2): 140-147.
- Rosenblatt, L. M. 1982. "The literary transaction: Evocation and response." *Theory Into Practice*, 21: 268-277.
- Sperzl, E. 1948. "The effect of comic books on vocabulary growth and reading comprehension." *Elementary English*, 25: 109-113.
- Sutherland, R. D. 1985. "Hidden persuaders: Political ideologies in literature for children."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16: 143-157.
- Wolk, D. 2007. *Reading comics: How graphic novels work and what they mean*. Cambridge, MA: De Capo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ilingual people with great potential for the nation'. 2016. The Women's News. March 10. [online]. [cited 2018.11.15].

- 〈[http://www.womennews.co.kr/news/91951#.Vu4btCnY\\_g7](http://www.womennews.co.kr/news/91951#.Vu4btCnY_g7)〉.
-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now two hundred thousand: Customized support expanded'. 2016. Kyunghyang Shinmun. March 9. [online]. [cited 2018.12.27].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1748201&code=9406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1748201&code=940601)〉.
- Cho, Youn Kyeong. 2014. *The effects of the reading program utilizing picture book on multicultural student's academic self-concept*. M.A. thesis. Daejin University.
- Choi, Young-Im and Bock-Hee Hahn. 2009. "A study on the plans of efficient reading guidance through a studying carto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251-270.
- Jo, Mi Jeong and Eun Hee Jeong. 2009. "The effects of book-reading activities on the reading comprehens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8(3): 213-229.
- Kim, Yonghyun. 2007.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writing for the children of immigrant family*. M.A. thesis. Pai Chai University.
- Lee Jong-Moon. 2012. "An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students & parents to comics for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227-246.
- Lee, Myunghee. 2012. *Multi-cultured family's reading environment and primary school student's reading ability relationship research*.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Lee, Soyeon, Byeonggon Min, and Hyun Kee Ahn. 2010. "An analysis of a reading test specially developed to measure the basic abilities of the 1st and 2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3: 257-286.
- Lim, Yeojoo. 2016. "A study of readers' responses on children's books about multiculturalism: Focusing on the children of familie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1): 237-261.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6. *Support pla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Nho, Choong Rai and Jin Joo Hong. 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127-158.
- Oh, Kyung Wha. 2011.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ir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 and adaption to Korean school lif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9): 83-97.
- Paek, Jin-Hwan and Yoon-Ok Han. 2011. “An action research of reading instruction on edutainment comics and its effec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213-229.
- Park, Mi-Jung. 2008. *A study on reading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 Rhee, Un Hai, Jeong Rim Lee, Myoung Soon Kim, and Hey Jung Jung. 2010. “A longitudinal study on early school adjustment and the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1): 65-82.
- Sim, Ji-Sun. 2014. *Effects of bibliotherapy using folk tales on cultural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A. thesis, Wonkwang University.
- ‘Supporti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ir developmental stages’. 2016. Seoul Shinmun, March 10. [online]. [cited 2018.11.15].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0014007>>.
- Yoo, Jae Yeon and Hyo In Lee. 2012. “A study of the writing abilities of school-ag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1(3): 101-113.

